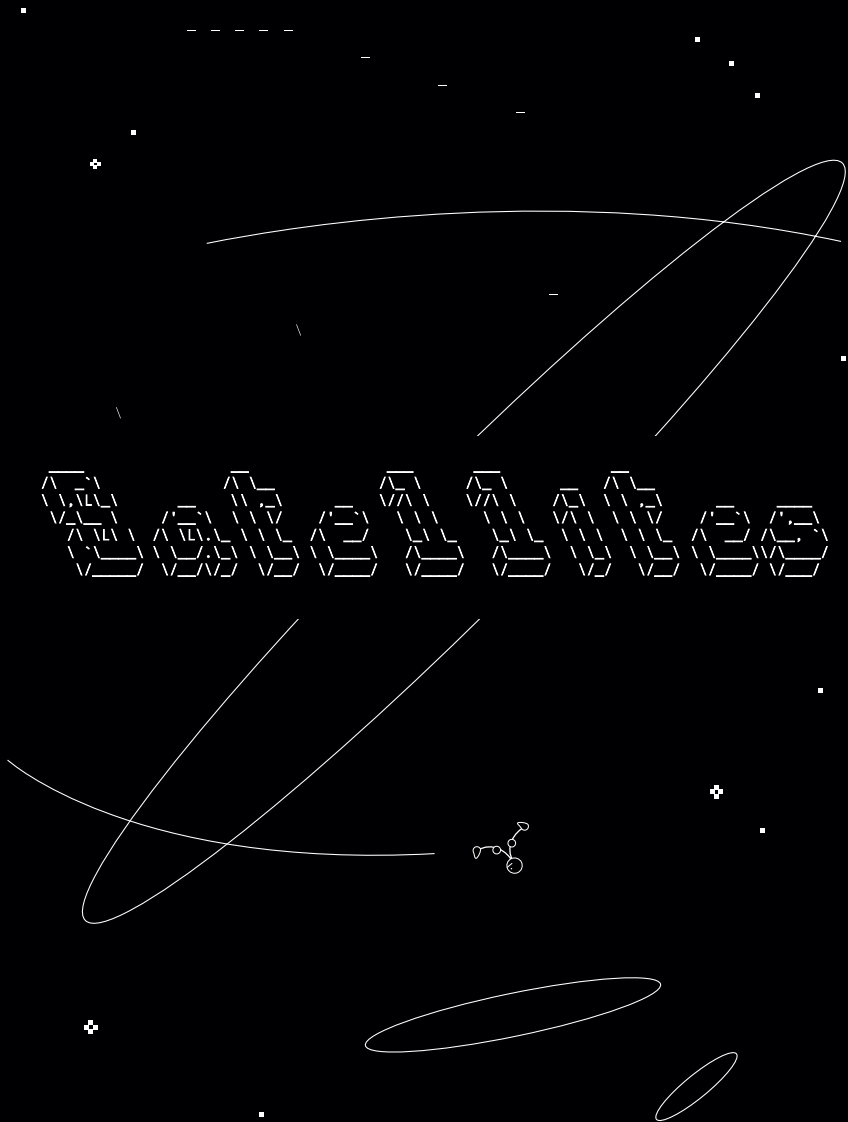




Satellites: 위성들
추미림 개인전
2020.11.5 - 11.29
Gallery LUX

부유하는 자들의 춤 이성휘	-----	5
작품사진	-----	15
명랑소녀상경기 권정현	-----	49
작품사진	-----	56
전시전경	-----	80
Credit	-----	98
C.V	-----	99

부유하는 자들의 춤

이성휘

추미림은 도시의 일상적 풍경을 관찰하여 기하학적인 평면작업이나 설치작업으로 풀어왔다. 그는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픽셀아트 같은 유닛들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도시에서의 일상을 표현해 왔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작가에게 도시의 환경과 삶의 경험들이 작업의 기반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인터넷과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세대로서 시각적인 사고 과정에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영향을 받는 것 또한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번 갤러리룩스에서 열린 개인전 《Satellites: 위성들》에서는 서울 및 주변 도시의 아파트 단지, 빌딩숲, 도시 간의 진출입로와 주변 풍경 등 도시에서의 일상과 풍경을 다룬 작업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 전시는 작가가 유년 시절부터 서울의 위성도시들을 맴돌며 살아온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는 우연히 주민등록초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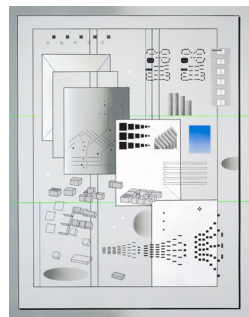
자신의 주소 변천사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 내역은 개인의 이동 이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과 서울 주변의 신도시 개발, 부동산 정책의 변천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의 삶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시는 한 개인의 추억으로 머무르지 않고, 대도시 빌딩 및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살아온 많은 이들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열망을 자극한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화를 쫓아 허우적대는 우리 자신과 주변인들에 대한 씩씩한 경험과 감정까지 떠올리게 만든다. 작품들이나 전시 자체는 작가의 유년 시절에 대한 노스텔지어나 도시의 삶에 대한 간절하면서도 따뜻한 유머가 많이 담겨 있어서 낭만적인 느낌마저 들지만, 부동산을 둘러싼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픽셀과 창

추미림은 자신을 도시(오프라인)와 웹(온라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도시라는 물리적 환경만큼이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온라인 환경이 자신의 삶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미술작가로 활동하기에 앞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먼저 시작했고, 그만큼 컴퓨터와 인터넷은 그에게 친숙한 수단인데 단순한 도구에 머무르기보다는 일종의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추미림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일종의 드로잉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작업에 필요한 모든 창들이 열려 있는 바탕화면이야말로 모든 작업의 소스이자 시작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Interface>(2020)라는 작품에서 작가는 여러 개의 창과 그래픽 유닛, 그리고 그리드선을 연상시키는 화면을 구성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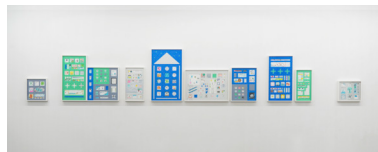


<Interface>(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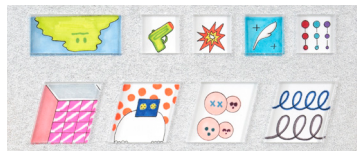
이 화면이 자신의 바탕화면임을 암시 하였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모니터 화면 비율처럼 가로로 긴 방향으로 캔버스를 사용했다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을 연상시킬 수 있었겠지만, 작가는 세로 방향으로 캔버스를 사용했고 그 크기가 웬만한 방의 창문 크기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의 창을 대입해서 바라 보게 된다. 그래서 캔버스 속 그림들은

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도시의 구획과 건물들처럼 보이며, 이 또한 작가의 드로잉북인 컴퓨터 바탕화면에 펼쳐 있는 것이기에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실 창이라고 하는 건축 공간의 프레임은 추미림의 작품 화면에서 유용한 프레임이 되는데, 건축물의 외관이나 창에서 따온 기하학적 도형이 화면의 조형적인 요소이자 내러티브의 틀이 된다. 이번 전시에서 추미림은 아파트 단지 입면도와 같이 연출한



<Castle> 시리즈(2020)



<Castle.004> 세부사진 (2020)

<Castle>시리즈(2020)를 선보였다.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작품제목은 부동산에 투영되는 계급의식을 상기시키지만, 그 안의 내용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작가의 낭만적인 공상으로 채워져 있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 등 다양한 크기의 도형이 도형자처럼 재단되어 있는 산뜻한 색상의 아크릴 커버는 빌딩숲이나 아파트 단지의 외피이자 이야기의 프레임이다. 각 도형마다 건물 내외부에서 목격할 만한 장면이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는데, 어떤 이미지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이모지(emoji)처럼 보이기도 한다. 기호에 가까운 그림들도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추측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온/오프라인 속 삶의 일면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영상작업 <Windows>(2020)에서도 정사각형, 직사각형, 계단형태 등 여러 모양의 창을 만들고 각 프레임마다



<Windows> (2020)

그 형태에 맞춰 애니메이션 영상이 돌아간다. 이 영상 속 이미지들도 건축물과 컴퓨터의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네비게이션

위성 지도 화면, 행성의 궤도, 이모티콘 같은 이미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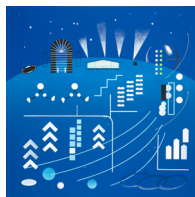
이 영상 중에서 작가는 위성지도를 픽셀이 다 보일만큼 확대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간 추미림의 작품은 간결한 도안이나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컬러링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출력물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 특히 그의 평면 작업은 픽셀에서 출발한 회화로 소개되곤 하는데 마치 디지털 원안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전시 작품들 중 화가의 손이 아닌 마우스로 그려진 디지털 이미지는 이 영상이 유일하다. 다른 평면 작업들은 작가가 손맛 가득하게 종이 위에 그리고 칠한 아날로그한 작업들이다. 한편, 그의 회화를 픽셀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때 종종 ‘픽셀 = 정사각형’이라는 선입견도 포함되곤 한다. 엄밀히 말하면 픽셀은 정사각형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 화면상의 포인트로 디지털 그래픽 화면의 최소단위일 뿐이다. 하지만 픽셀이 연상시키는 비트맵 이미지와, 흔히 픽셀이 깨졌다고 표현할 때 이미지 해상도가 떨어지며 생기는 격자무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픽셀을 정사각형으로 간주한다. 이 픽셀을 추미림은 대도시 건물의 창과 연결 지어 도시의 일상을 투영하는 창으로 확장한 것이다.

부유하는 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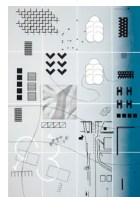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추미림은 서울의 위성도시들이 개발될 때마다 이사를 다니며 목격한 위성도시의 조건과 환경, 그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억을 작업에 투영시켰다. 알다시피 위성도시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주변 도시를 일컫는 표현으로 중심 도시의 인구를 분산시켜 주거를 분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들은 도시 기능이 자족적이든, 의존적이든 대개 위성도시의 지위에 있는 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1990년대 분당, 일산을 시작으로 하여 불과 30여 년 만에 신도시라 통칭되는 위성도시들이 우후죽순 개발되었다. 이 시기 수도권에서 성장한 추미림은 부친의 직장 및 부동산 투자 계획과 맞물려 이사와 전학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는 성남, 분당, 수지 등 자신이 이사 다녔던 신도시들의 풍경이 획일적인 도시계획 하에 일사천리의 속도로 조성되었음을 지적하며, 이 인위적인 도시들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획득하지 못한 채 부유하듯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였다. 그의 <Sweet Section> (2020)은 대한민국 부동산 판타지의 종착지인 서울을 연상시킨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실제 서울보다 훨씬 느슨하고 여유 있는 부감 형식의 이 작품은 핑크색으로 칠한



바탕 때문에 이곳이 정말 달콤하고 안락한 도시일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작품 좌우로 걸려 있던 <Icy Moon>(2020)과 <The Rabbit Hole>(2020)은 서울과 연결된 위성도시에 대한 작가의 단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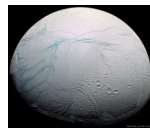
<Icy Moon>



<The Rabbit 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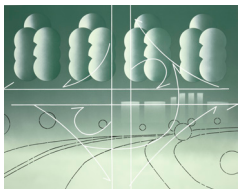
<Flyer.002>



엔셀라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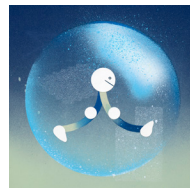
획일적인 도시계획은 작가에게 토성의 얼음 위성 엔셀라두스처럼 냉정한 온도로 기억되었고, 지역 주민들만 아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지역의 작은 통행로는 주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Flyer.002>(2020)는 지워진 슬로건과 말풍선 자리에 위례, 미사 등 어떤 도시의 아파트 단지 개발에 대한 광고문구를 갖다 붙여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서울과 주변 신도시의 관계를 행성과 위성의 관계로 치환하여 생각했고, 이를 전시장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시장 벽면에 걸린 작품들은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들처럼 몇 개의 곡선과 점들로 서로 연결되었는데, 작품들의 몽상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각각의 캔버스는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별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공중에서 부유하는 듯한 느낌은 <Interchange>(2020)가 특히 강하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의 교차로를 표현한

이 작품은 회전 구간을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때의 부드럽고 산뜻한
기분이 상상되는 작품이다. 공중에 떠 있는 듯 둥글게 조경이 된
나무들과 회전도로, 그 위에 오버랩 된 교차로 화살표들은 마치
앤디 워홀의 <Dance Diagram>(1962)처럼 한 편의 안무를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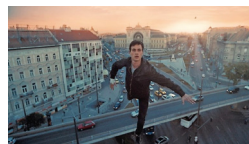


<Interchange>

회전도로를 따라 떠다니는 원들처럼 공중에 부유해 있는 상태에서
추는 산뜻하고 가벼운 춤이다. 서울, 주변 신도시, 어디에서도
쉬이 자리 잡기 힘든 사람들이 차라리 공중으로 부유해서 추는
춤이다. 전세난민, 호텔거지와 같은 말들이 난무하는 오늘날,
이 도시 어디에도 두 발 딛고 살 곳이 마땅치 않다면 차라리 중력을
이기고 공중 부양을 하는 상상이라도 해보는 것이다.
영화 <주피터스 문>에서 난민 수용소를 탈출해 쫓기다가
공중 부양을 하는 초능력을 가지게 된 주인공처럼 말이다.
사실 추미림은 전시장 한 켠에 자기 자신을 투영한
<Bubble Walking>(2020)을 걸어 두었다. 버블 속 캐릭터는
즐거워 보인다. 씩웃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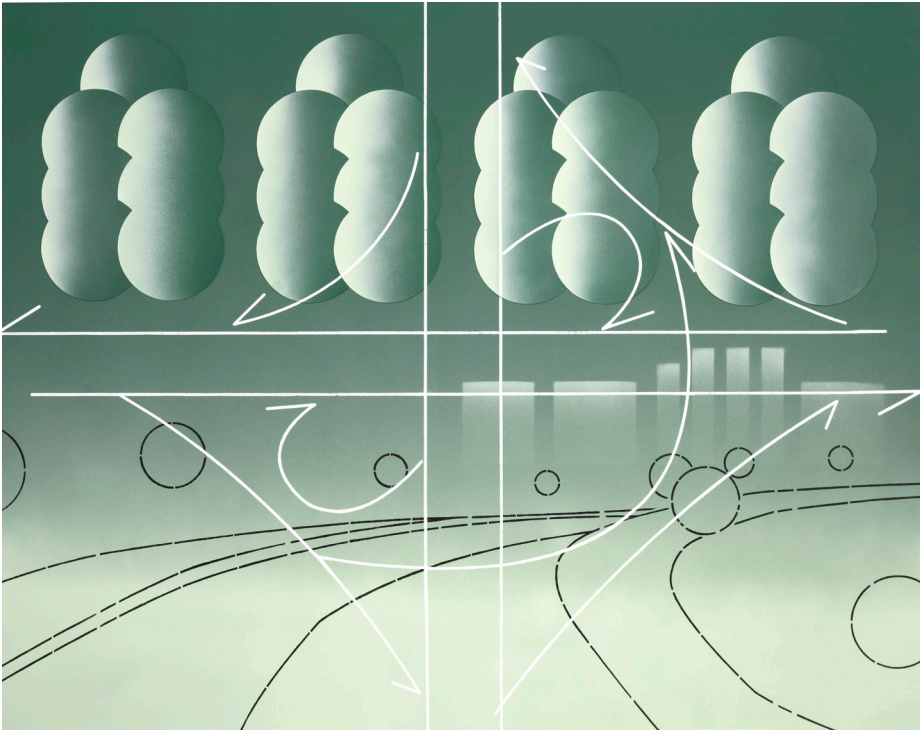


<Bubble wal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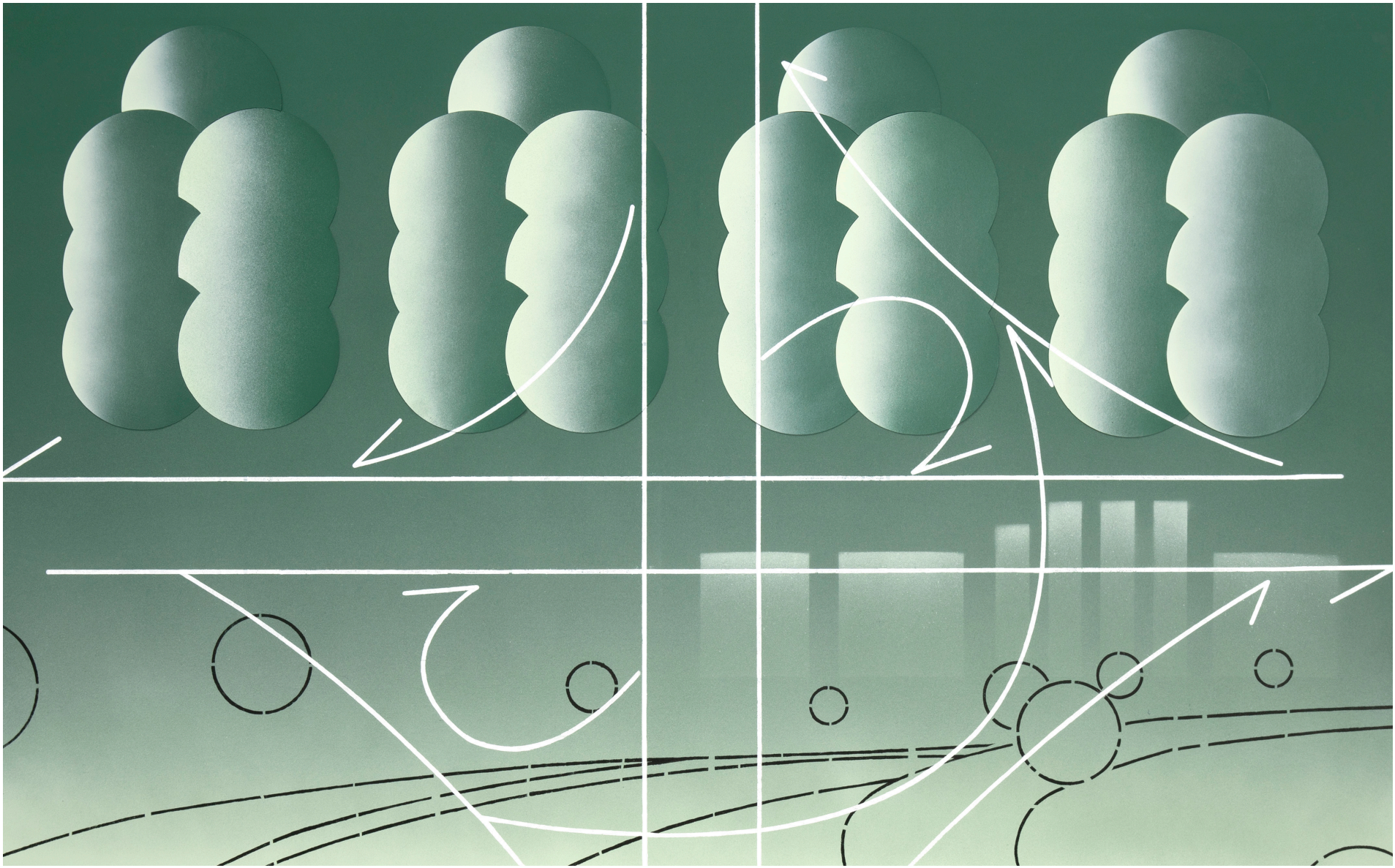
영화 <주피터스 문>

그는 큰 보폭으로 버블을 굴리며 걷고 있다. 이 버블은 부동산
버블이 아닌, 서울과 위성도시 어디든 자유롭게 부유할 수 있는
버블이다. 현실보다 조금 높은 공중에서 부유한 채로 추미림을 걷게
해주는 버블, 그 산뜻한 걸음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고단한 현실에서
상상으로라도 춤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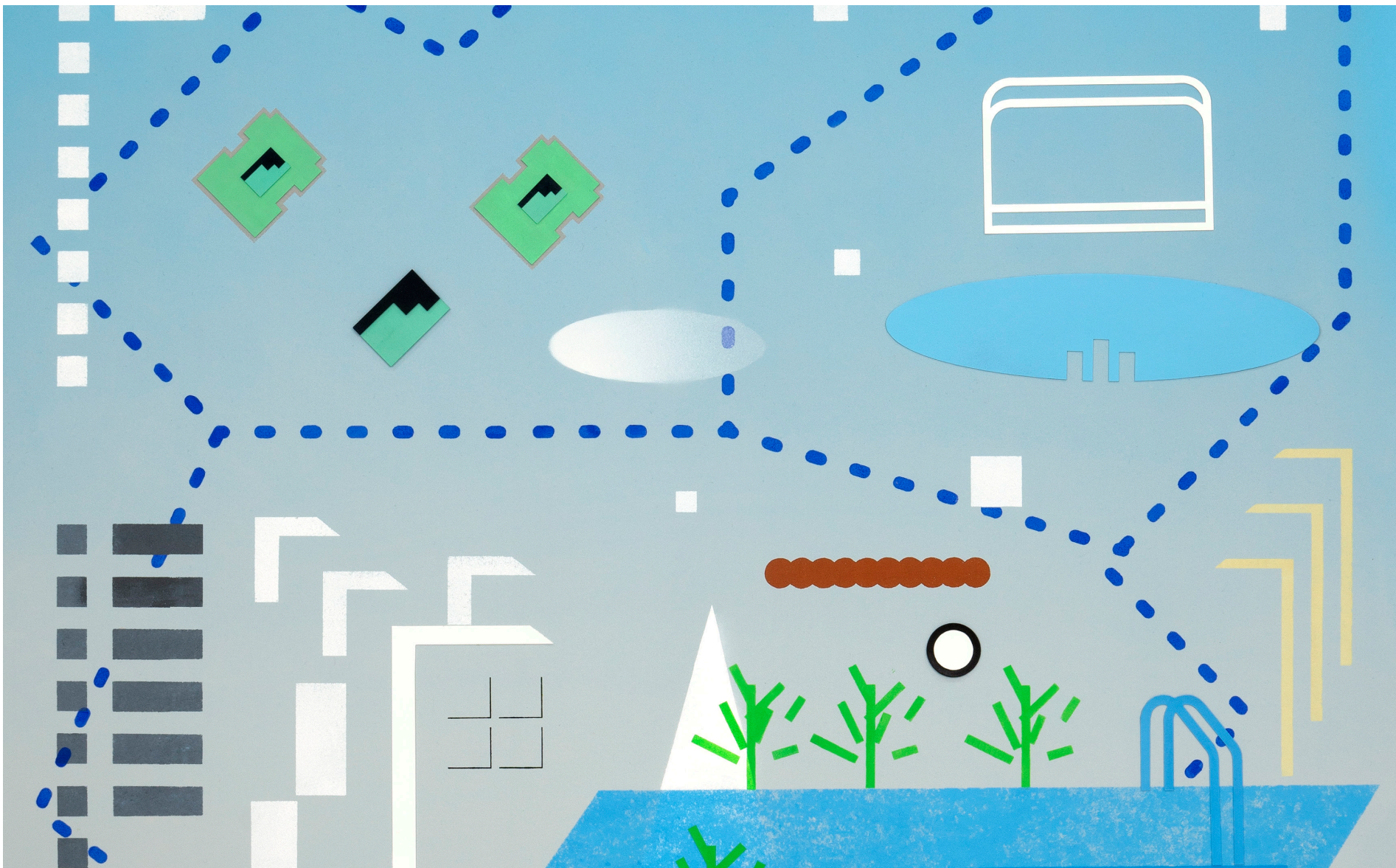
Interchange

80×100cm, 종이 배접 판넬에 아크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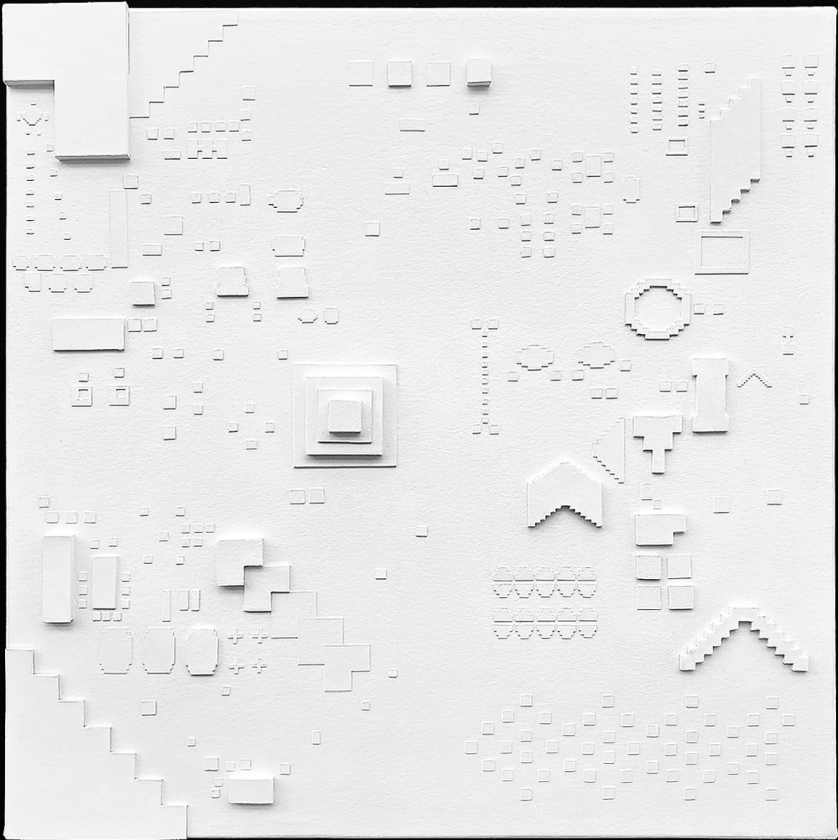
Swimming pool after school
100×80cm, 종이 배접 판넬에 아크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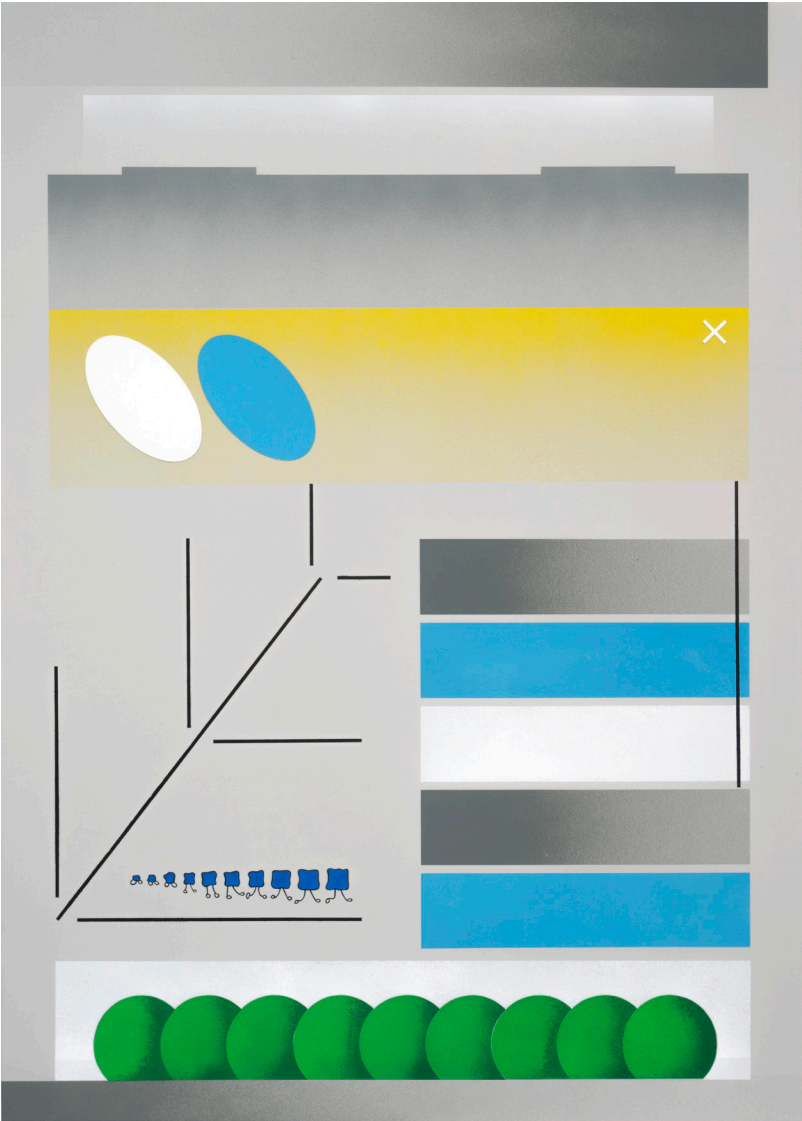
Ghost world

25×25cm, 종이 배접 판넬에 종이, 목공용 접착제, 아크릴,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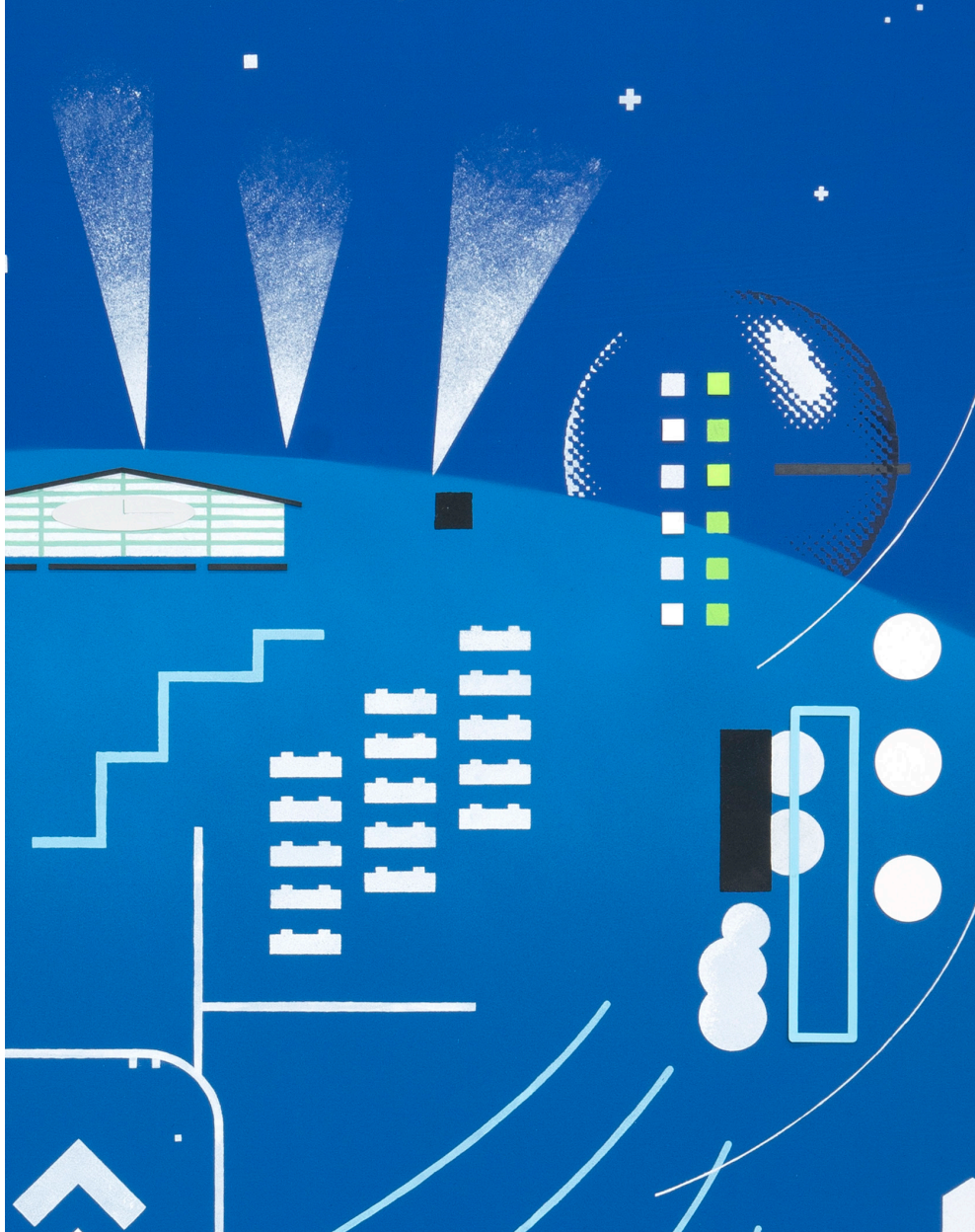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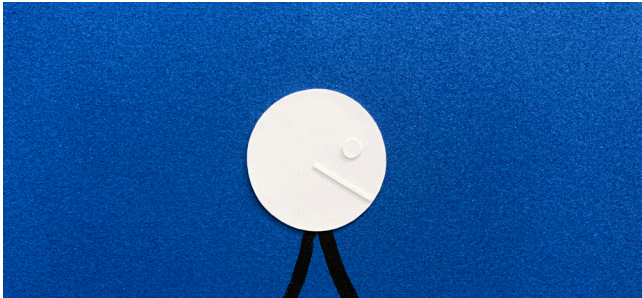
Flyer.001
84×60cm, 종이 배접 판넬에 아크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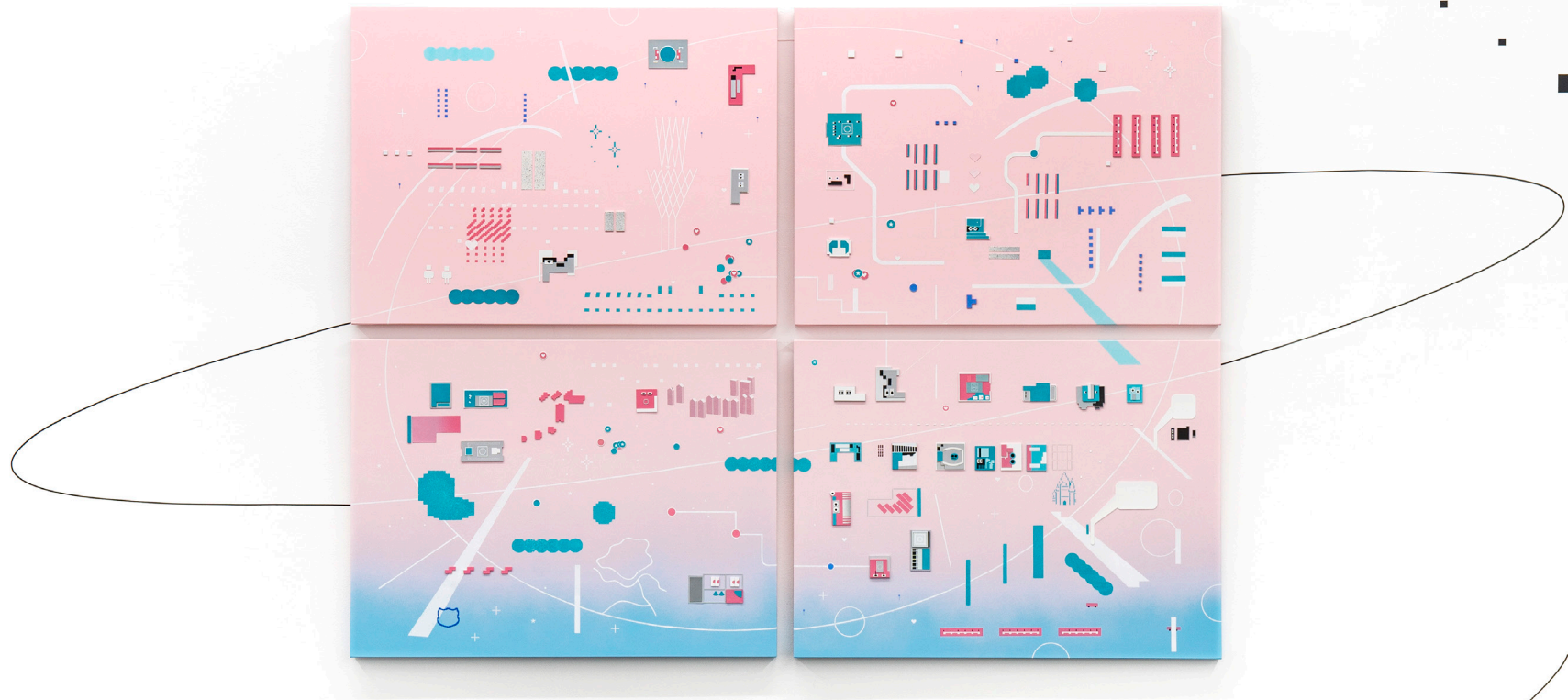




Icy moon

100×100cm, 종이 배접 판넬에 아크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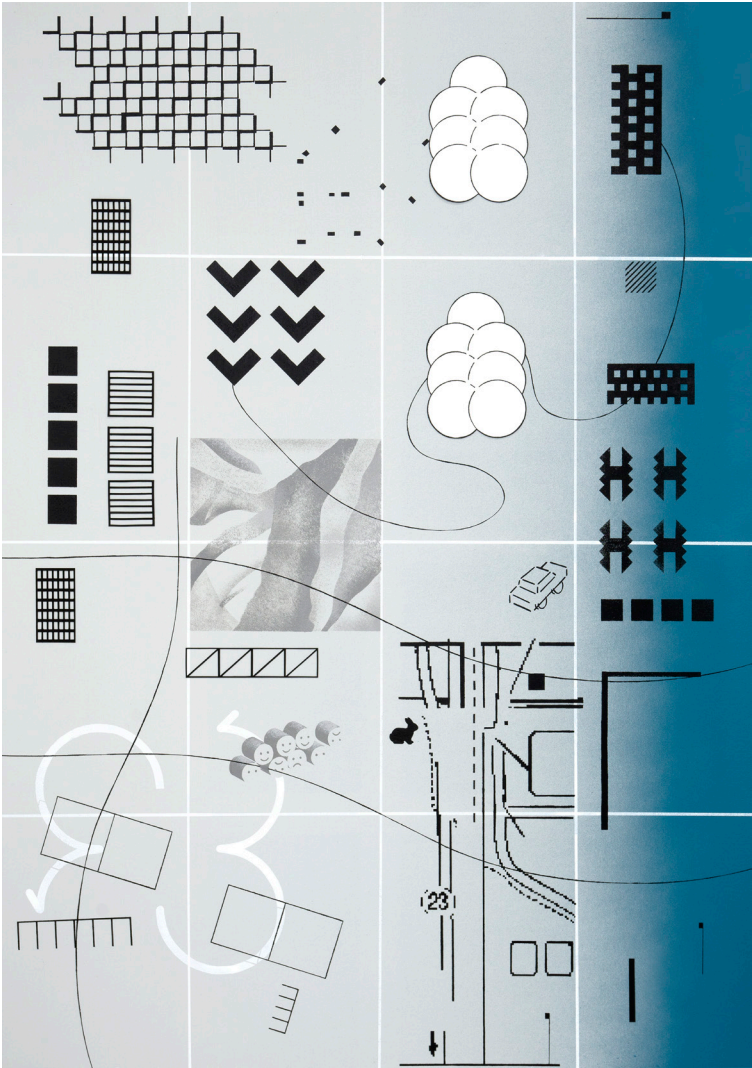
Sweet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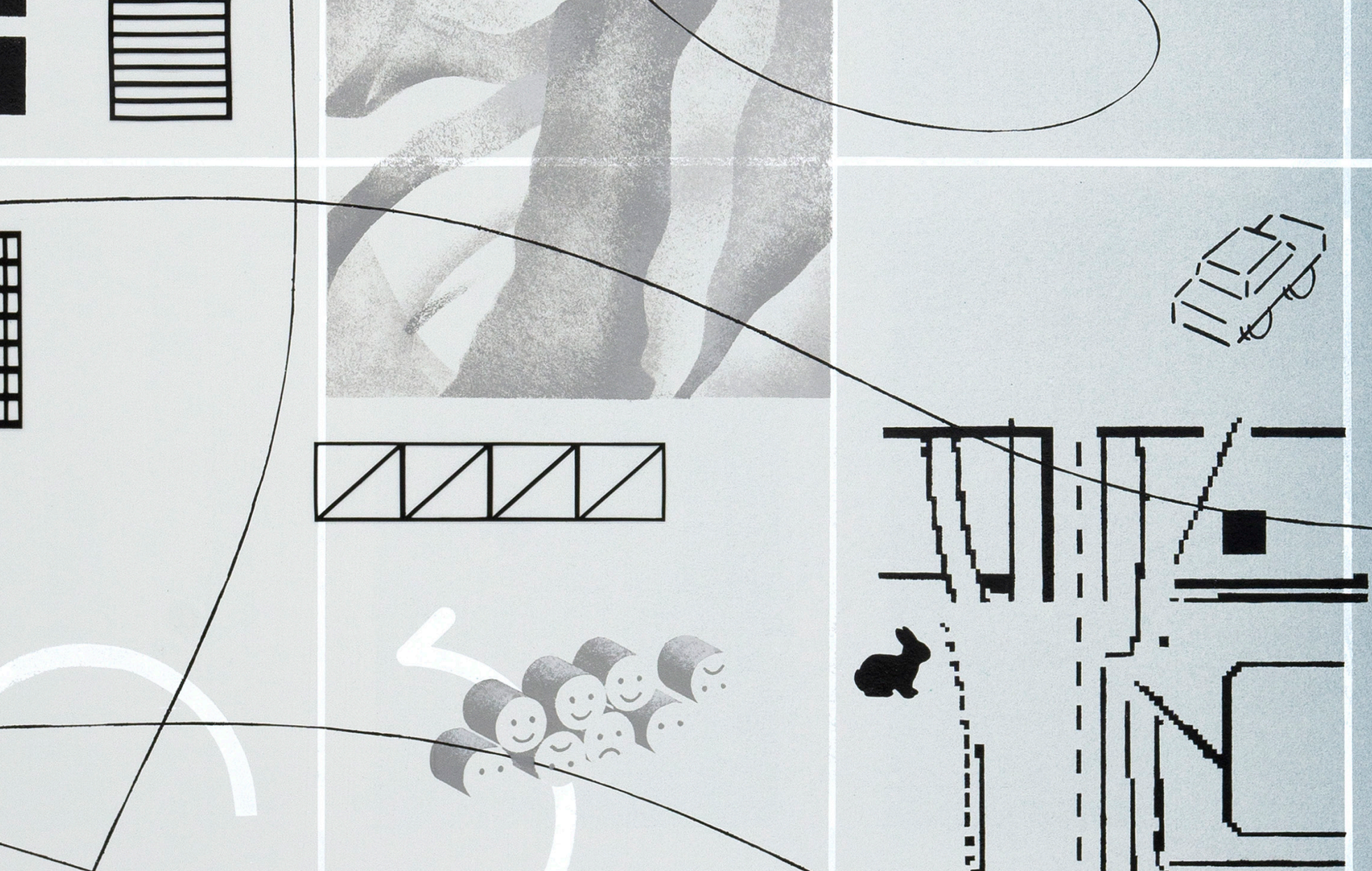
각 60×80cm (총 4점), 종이 배접 판넬에 종이, 목공용 접착제, 아크릴, 2020



The Rabbit Hole

84×60cm, 종이 배접 판넬에 종이, 목공용 접착제, 아크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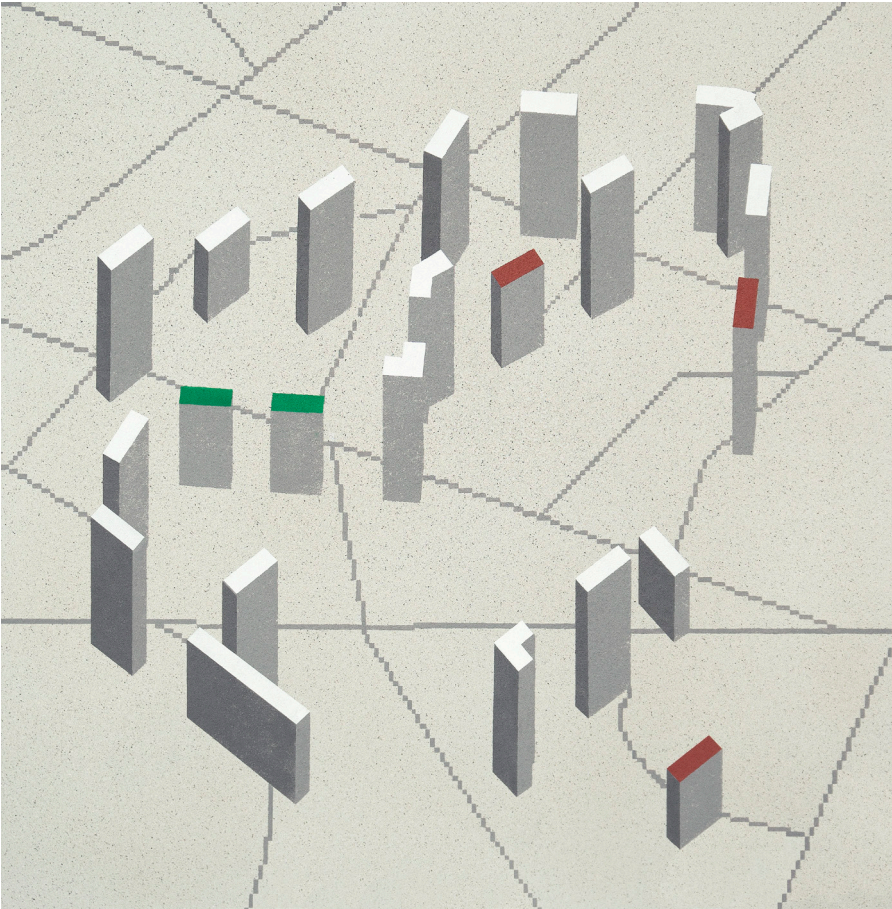


Flyer.002

80×100cm, 종이 배접 판넬에 종이, 목공용 접착제, 아크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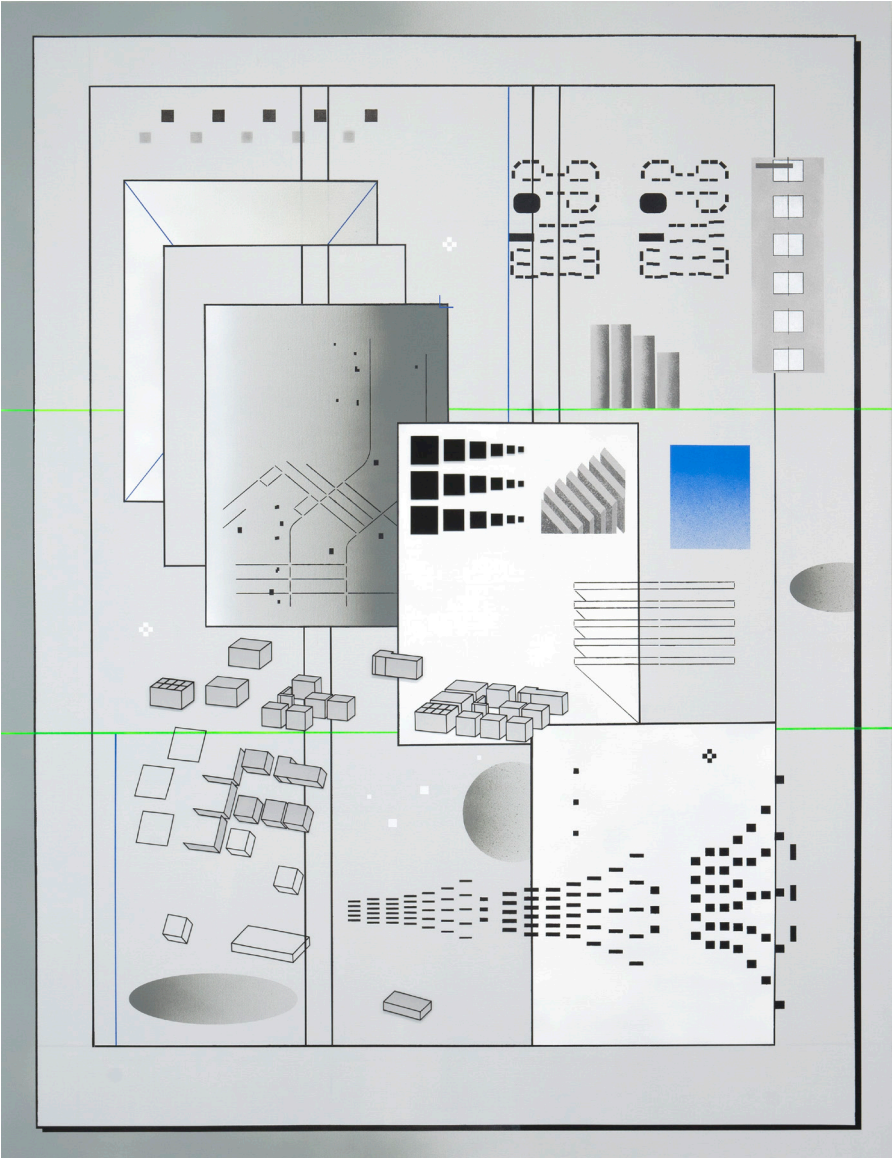
Play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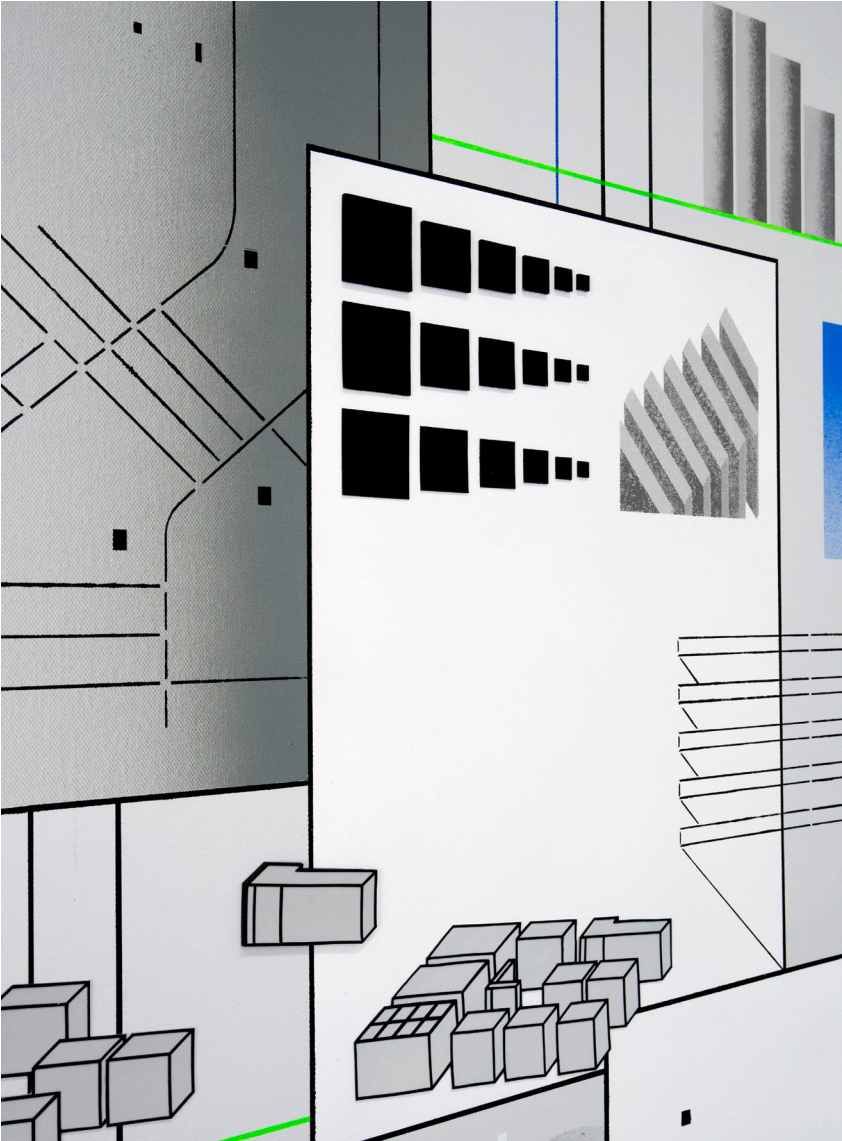
70×70cm, 종이 배접 판넬에 아크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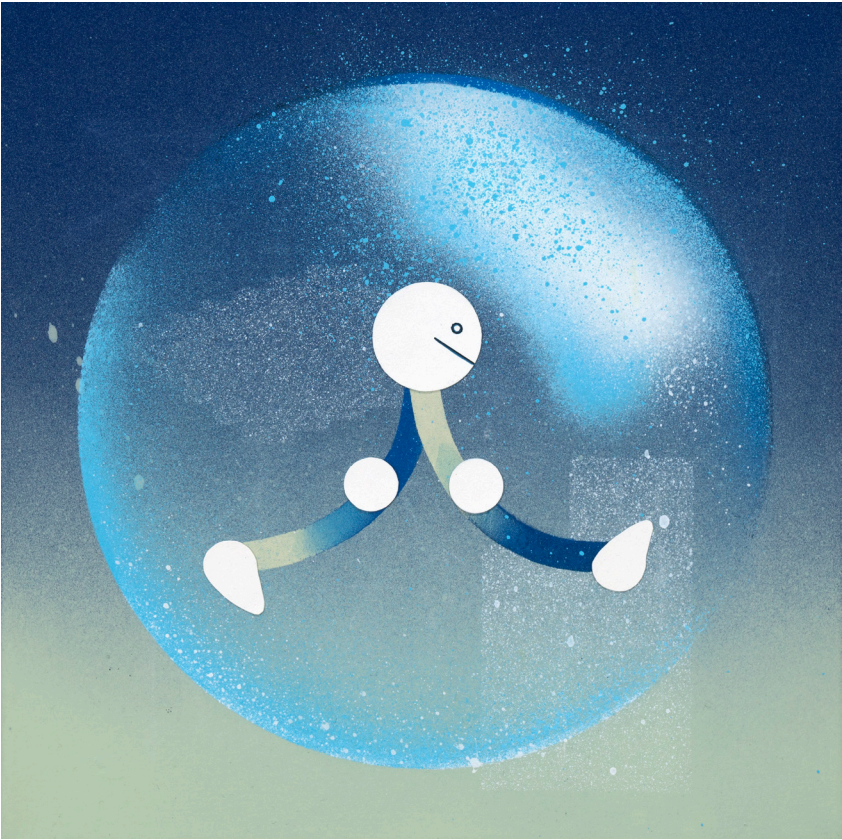


Interface

145×112cm, 캔버스에 아크릴, 목공용 접착제, 종이, 2020







Bubble walking

25×25cm, 종이 배접 판넬에 아크릴, 2020

明朝少女上京記

명랑소녀상경기

권정현

매주 토요일은 로데오거리에서 친구들과 노는 날이다. 약속 시간은 오후 1시, 약속 장소는 분수광장. 만나서 하는 일은? 팬시문구점 가서 스티커 구경하고, 즉석떡볶이랑 볶음밥 먹고, 노래방 가서 놀고, 캔모아 가서 파르페 먹고, 스티커 사진 찍고, 맥도날드 가고. 뭐 이런 거였다. 서울이랑 다를 게 별로 없다. 경기도의 신도시는 서울에 있는 건 다 있으면서 더 편리하게 되어있다는 게 어릴 적 내 생각이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나는 시절이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시작으로, 이를 열화북제한 로데오거리가 전국에 퍼져있다. 우리사회는 ‘로데오’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단어를 변화가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받아들여서, 아예 행정구역명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명품 거리로 시작했지만, 서울 외 지역에서 대부분 로데오거리는 그 지역의 중심가를 뜻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서현역 로데오거리, 수원역 로데오거리처럼 지하철역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을 뜻한다. 주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쇼핑몰이 있고, 그 주변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부터 노래방, PC방, 당구장 같은 유흥시설에 안경점, 병원, 미용실 같은 생활 필수 업종까지 모든 게 짬뽕되어 있다. 바로 이 도시, 서울을 베꼈지만 어딘지 조금씩 부족하고 어설픈 도시, 결국 서울이라는 행성을 바라보고 있는 위성도시가 추미림의 《Satellites: 위성들》의 주인공이다.

전시장 벽 중앙에 서울이 있다.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도시 서울은 말 그대로 핑크빛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위성도시가 펼쳐진다. 낮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분주하다가 밤이 되면 더욱 왁자지껄해지는 도시, 반듯하게 구획된 도로와 아파트 단지가 빼곡한 도시, 커다란 인터체인지를 지나야 만나는 도시가 펼쳐진다. 그래픽은 캔버스를 넘어서 전시장 벽면으로 이어지고 공간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경험하게 한다. 하나의 우주, 서울과 그 위성들의 우주가 펼쳐진다.

추미림은 도시의 풍경을 추상화한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한다. 아파트 단지는 사각형의 배열로, 인터체인지 도로는 곡선의 교차로, 도시의 조경은 동그란 형태로 추상화된다. 신도시 풍경은 마치

컴퓨터로 프린트한 것처럼 반듯하고 깔끔한 그래픽 이미지로 변환된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형식적으로는 정제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형태 안에는 끈적끈적한 감정이 들어있다. 가장 내밀한 이야기가 가득 담긴, 경험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장소를 절제된 이미지로 재현한다. 그는 자신이 자란 도시의 풍경, 결코 자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풍경을 애착의 눈길로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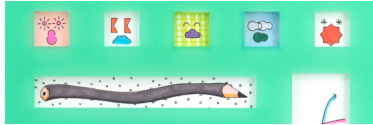


<Swimming pool after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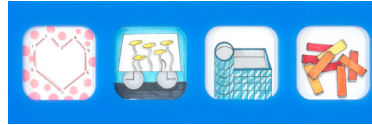
<Swimming pool after school>은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다. 그것은 단지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 단지의 독특한 풍경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내던 경험된 장소로서 수영장과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다. 이처럼 《위성들》속 그곳은 그저 서현역의 랜드마크인 쇼핑몰이 아니라 친구를 기다리던 만남의 장소로서 쇼핑몰이고, 그저 경기도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피곤한 퇴근길에 버스 차창 밖으로 본, 집에 왔다는 안도와 기쁨이 있는 인터체인지다. 그러므로 추미림의 그림에서 도시는 그저 도시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경험의 장소다. 그의 추상 그래픽은 자신이 경험한 도시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인상이 아닌 감정적인 표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풍경은 단지 묘사되지 않는다. 도시의 풍경은 곧 삶의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도시를 경험의 장소로 재해석하는 것은 <Castle> 연작에서 강화된다. 도시의 아파트를 닮은 아크릴 패널은 칸칸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시의 풍경은 아이콘을 닮은 추상화된 그래픽으로 표현된다. 종이 위에 펜과 마커로 그려진 장난스러운 이미지는 어릴 적 다이어리를 꾸미면서 그렸던 그림을 떠오르게 한다. 그는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으로도 어떤 시절을 소환하고 기억하게 한다.

이때 그가 재현하는 도시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있었던 경험으로 구체화된다. 그에게 도시는 인스타그램의 하트로, 손이 닳도록 쥐던 연필로,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로 형상화된다. 그에게 도시 풍경은 이러한 경험이지, 도시의 물리적 경관 자체가 아니다. 그 경험 자체가 장소가 된다.



<Castle.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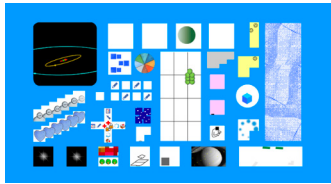


<Castle.008>

<Windows>에서는 이러한 도시 풍경이 영상이 되어 움직인다.

아크릴 패널은 도시를 추상화한 그래픽 모양으로 비워져있고,

그 비워진 틈으로 도시의 풍경이 흘러간다. 도시는 작품 제목 그대로 차창 밖 풍경처럼 흘러간다. 흘러가는 풍경은 마치 옛날 플래시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어딘지



<Windows> (2020)

매끄럽지 않게 움직인다. 그 매끄럽지 않은 움직임이 흘러간 시간과 기억을 소환하고, 그렇게 그 움직임의 빈틈은 각자의 기억에서 불러오는 서사로 채워진다. 추상화된 그래픽의 나머지를 경험의 이야기가 채우는 것처럼, 끊어질 듯 부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동영상의 시간은 공백으로 남은 채 다른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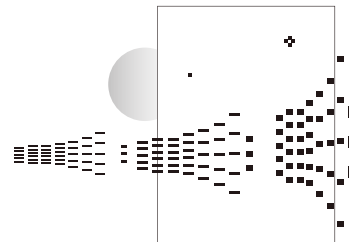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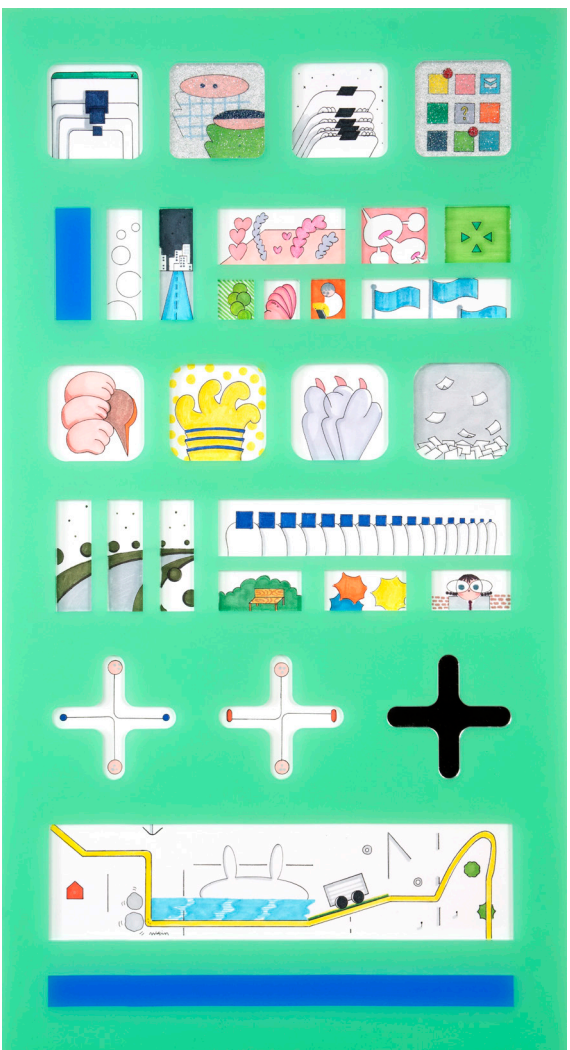
<Bubble walking>

이러한 도시의 경험, 그 경험의 시간은 기원으로서 현재의 나를 구성한다. 《위성들》은 그 시간을 되돌아봄으로써 자신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간의 우울을 동반하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유쾌함과 명랑함을 가득 채우고서 지나간 시간을 성큼성큼 걸어간다. 이번 전시의 아이콘 <Bubble walking>은 푸른빛의 투명한 방울에 쌓여서 걷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세 시간씩 출퇴근을 해도 씩씩하게 걸어가던 과거의 모습이면서, 여전히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모른 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명랑한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기원으로서 도시와 현재를 살아가는 도시를 누빈다. 밝고 환한 마음으로. 전시 곳곳에 숨어서 명랑하게 걷는 <Bubble walking>의 소녀, 사랑스러운 고양이 발뭇치와 끝없이 샘솟는 하트 같은 것들이 사실 이 전시의 진짜 주인공이다. 그 씩씩하고 명랑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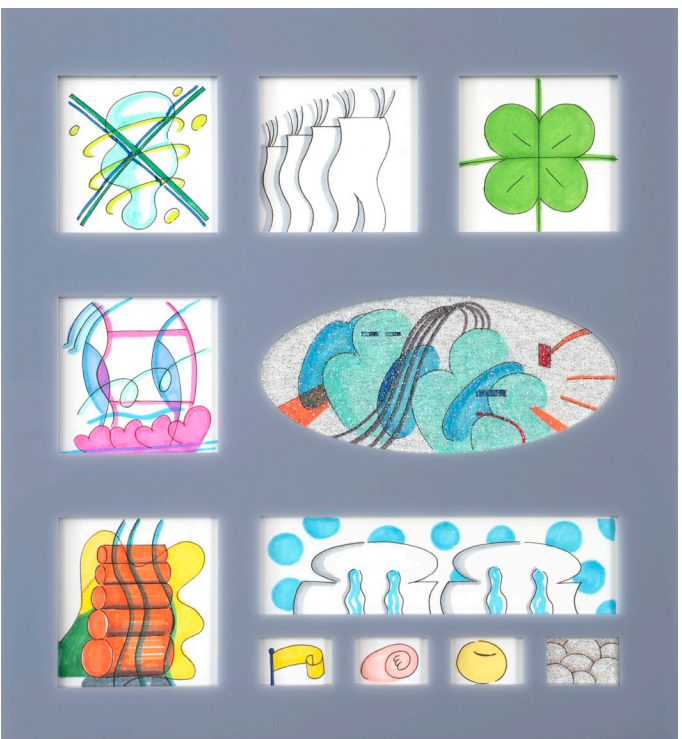
따뜻한 애정의 시선이 《위성들》 곳곳에서 우리에게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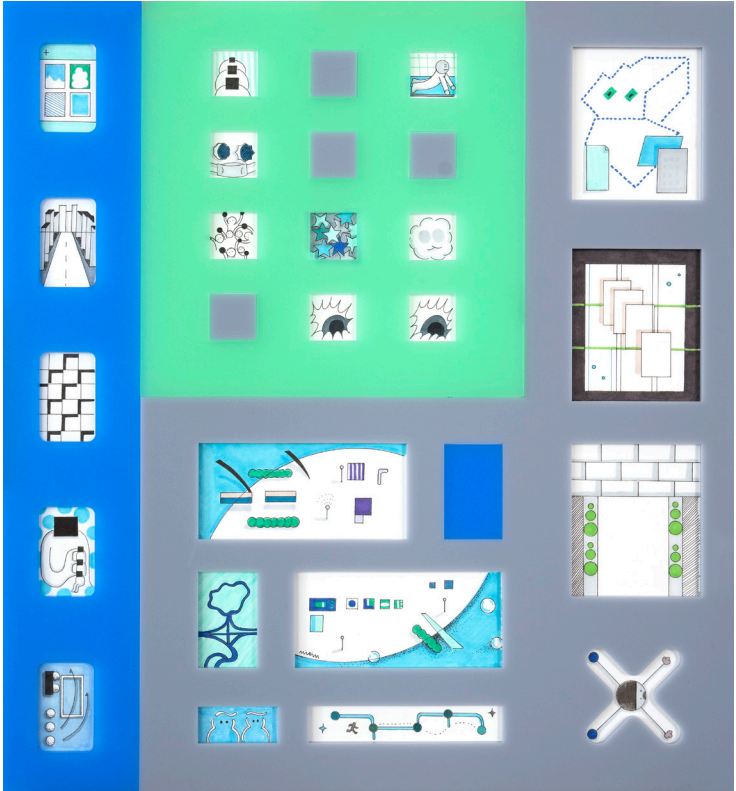
청소년기를 보낸 신도시를 떠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서울에 살면서 비로소 내가 보고 자란 도시가 사실은 서울을 베낀
것이구나, 그것도 아주 못나게 베낀 것이구나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서울에 너무 익숙해져버려서, 다시 그 열화복제된 도시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가끔 그곳에 가면, 도시는 어느새
‘조상님 신도시’가 되어서 시간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가로수는 굵고 커졌고, 낡은 건물 위로 곳곳을 덧대어 리모델링한
부분이 보인다. 그럼에도 로데오거리의 번잡함과 산만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심각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장소는 쉽게
담담해질 수가 없다. 못생긴 거리 위에 젊음과 활기가 끈끈하게
달라붙어서 미워도 미워할 수가 없다. 명랑하고 씩씩했던,
에너지 넘쳤던 시절이 그 도시에 함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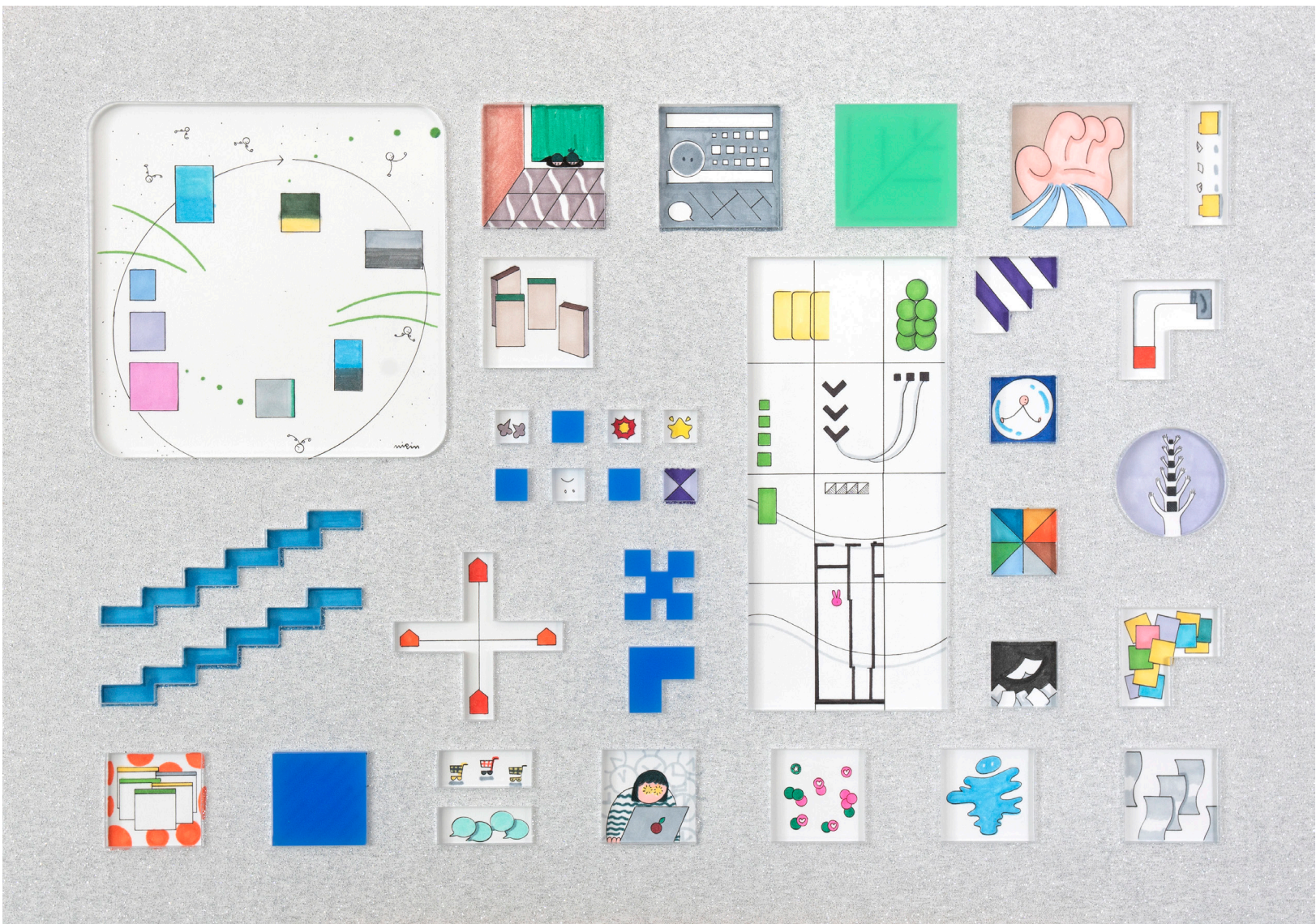




Castle.001 28×25cm, 종이에 유성펜, 마커, 아크릴 4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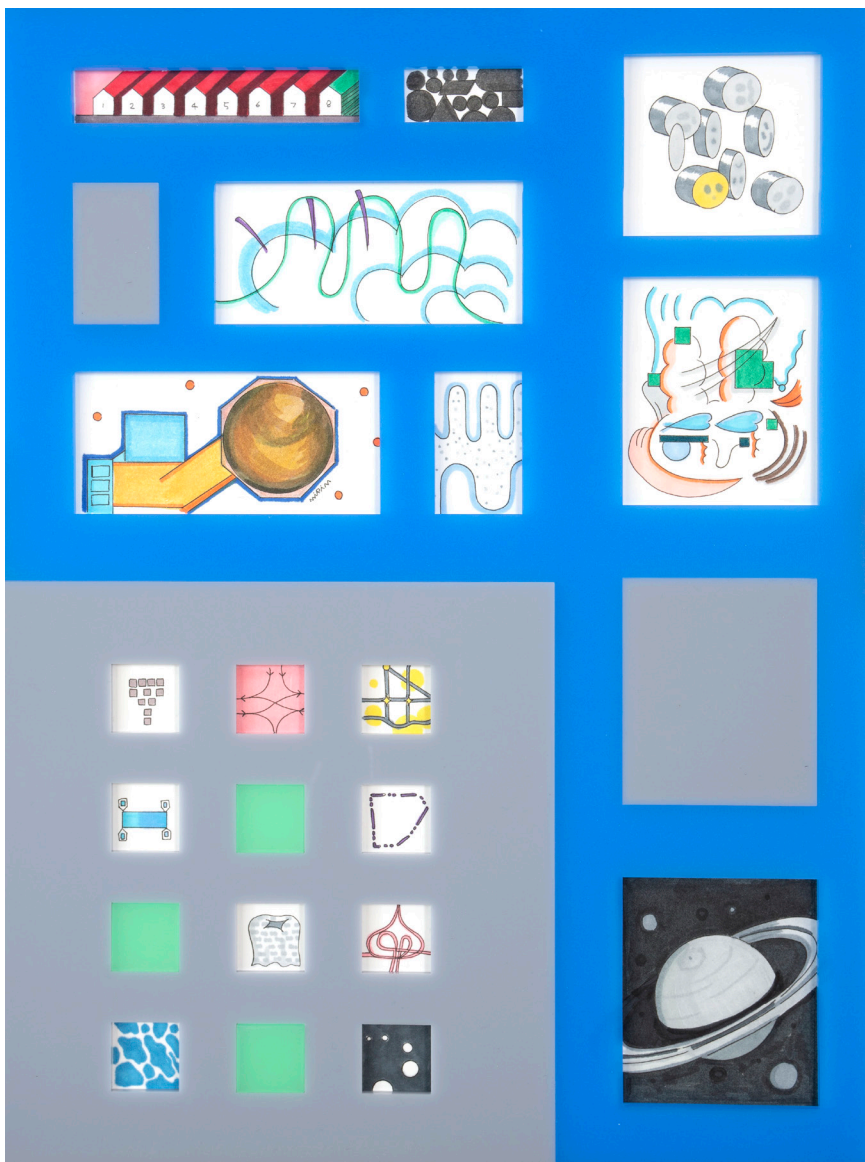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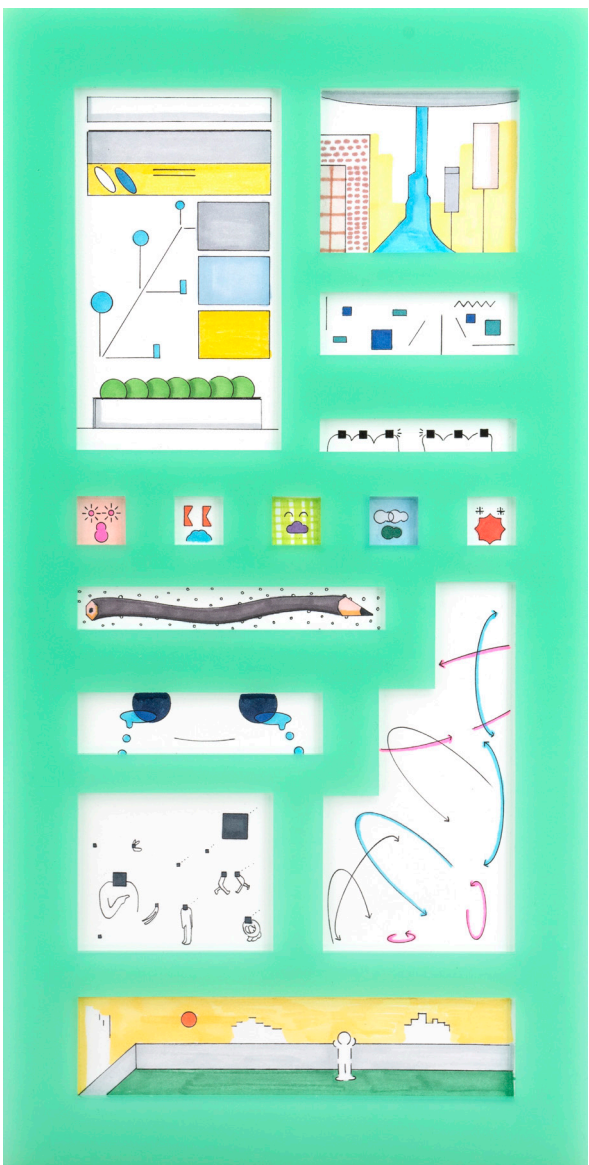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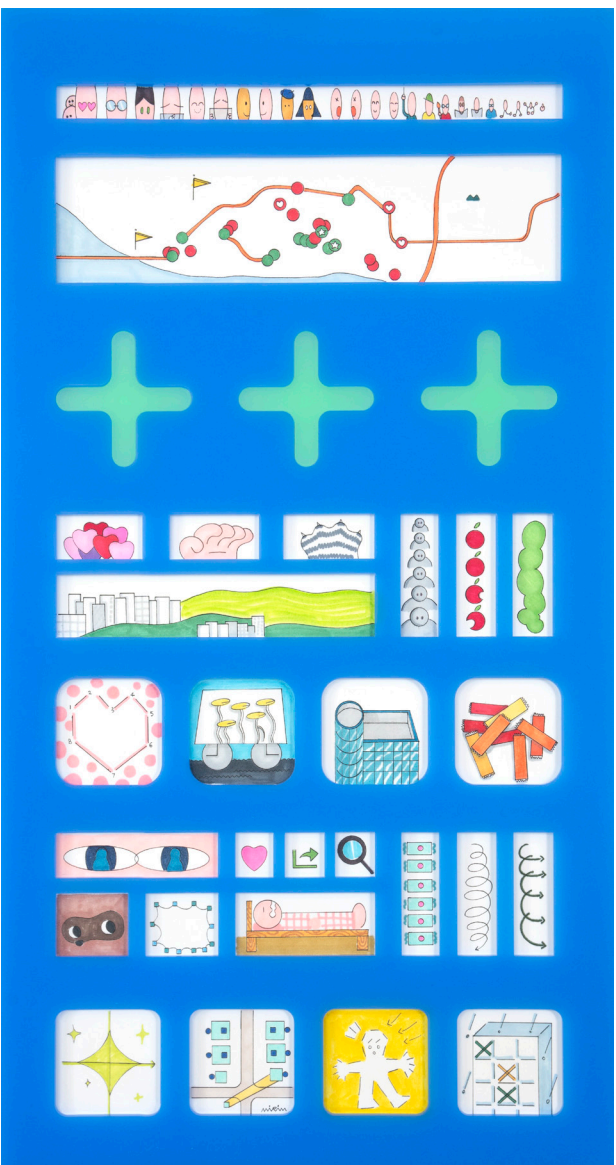
Castle.005 67×40cm, 종이에 유성펜, 마커, 아크릴 4T, 2020



Castle.007 43×33cm, 종이에 유성펜, 마커, 아크릴 4T, 2020



Castle.008 58×31cm, 종이에 유성펜, 마커, 아크릴 4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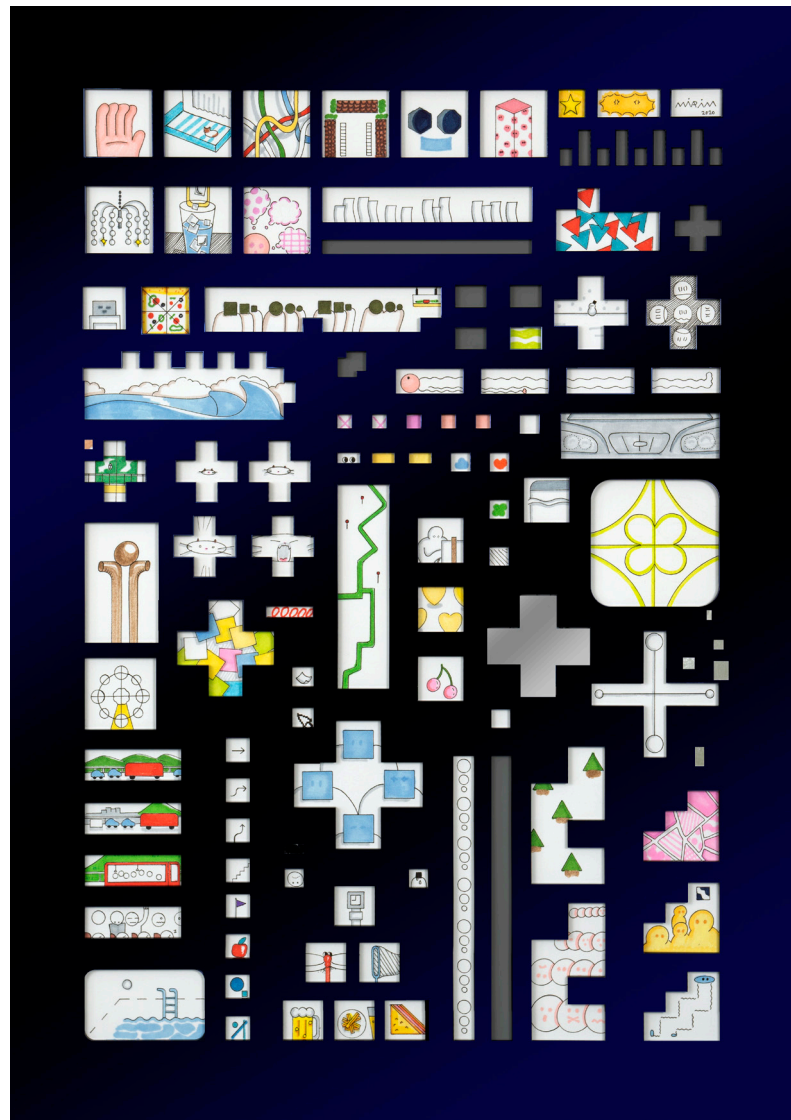




Castle.010 25×28cm, 종이에 유성펜, 마커, 아크릴 4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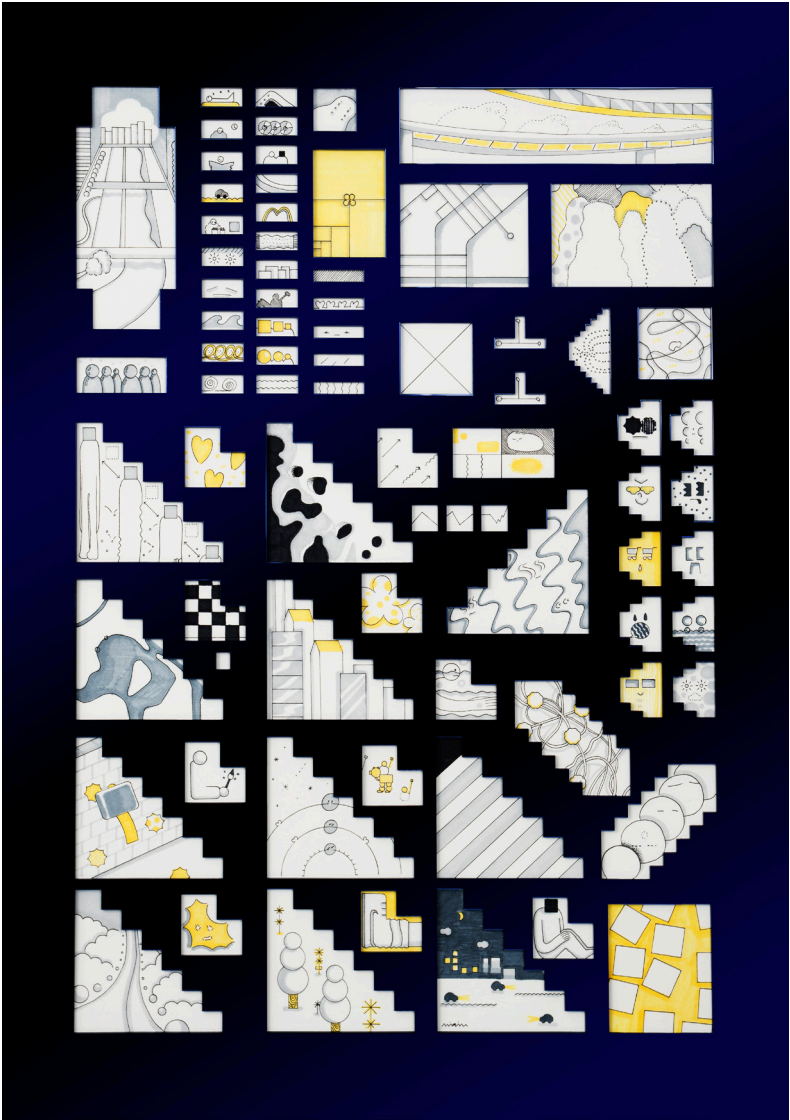
Memory.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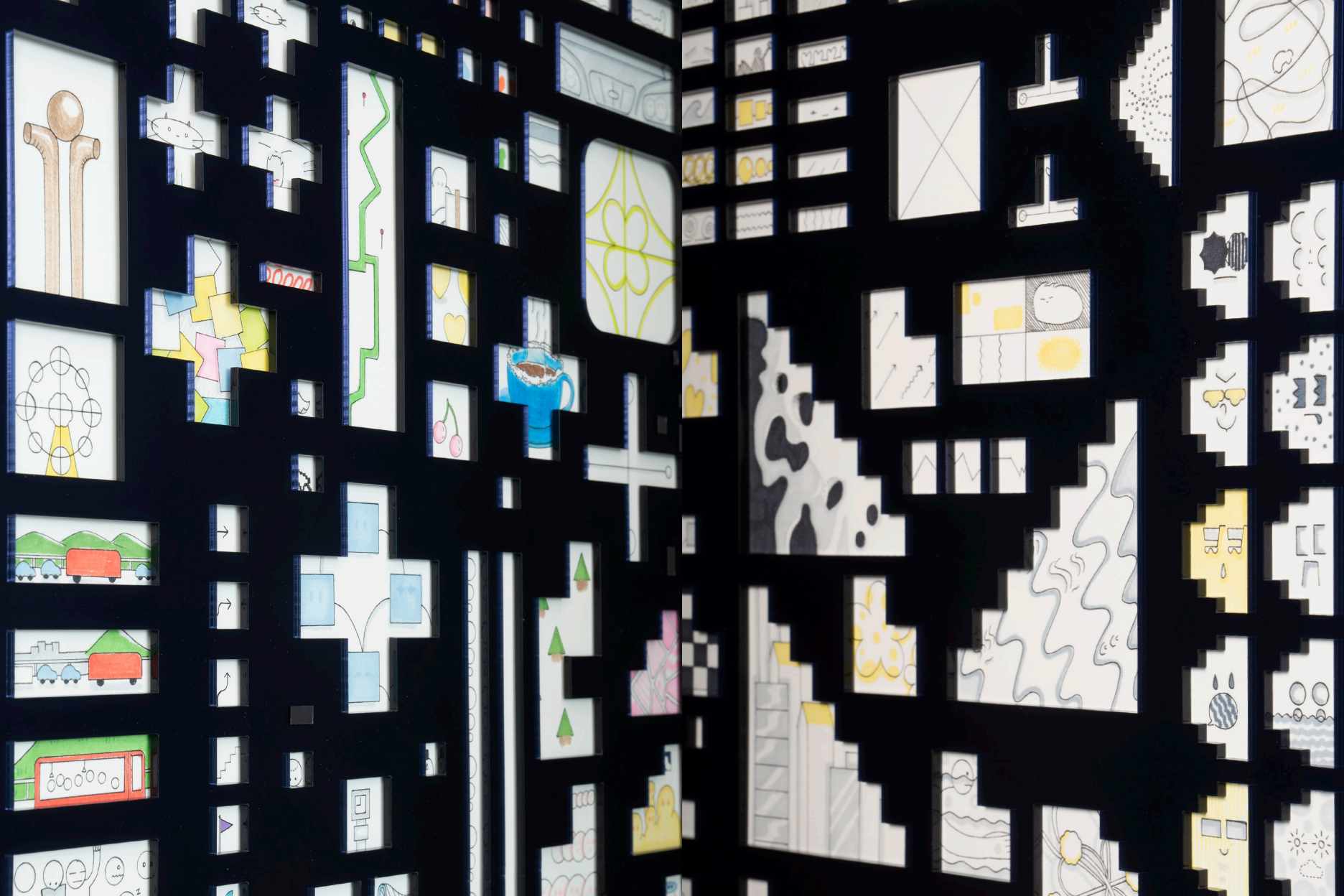
59.4×42cm, 종이에 아크릴, 마커, 검은 거울 아크릴 4T, 2020



Memory.02

59.4×42cm, 종이에 아크릴, 마커, 검은 거울 아크릴 4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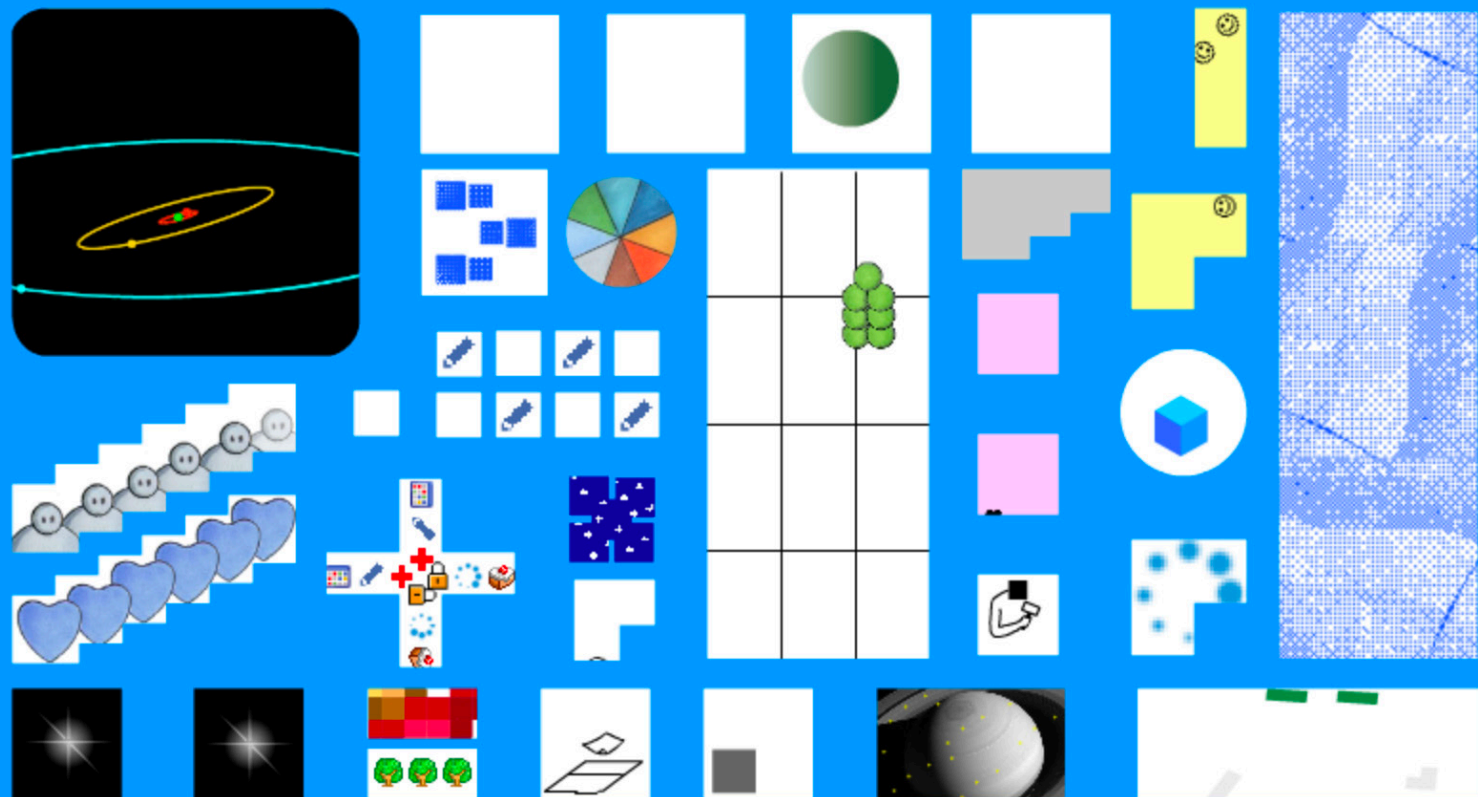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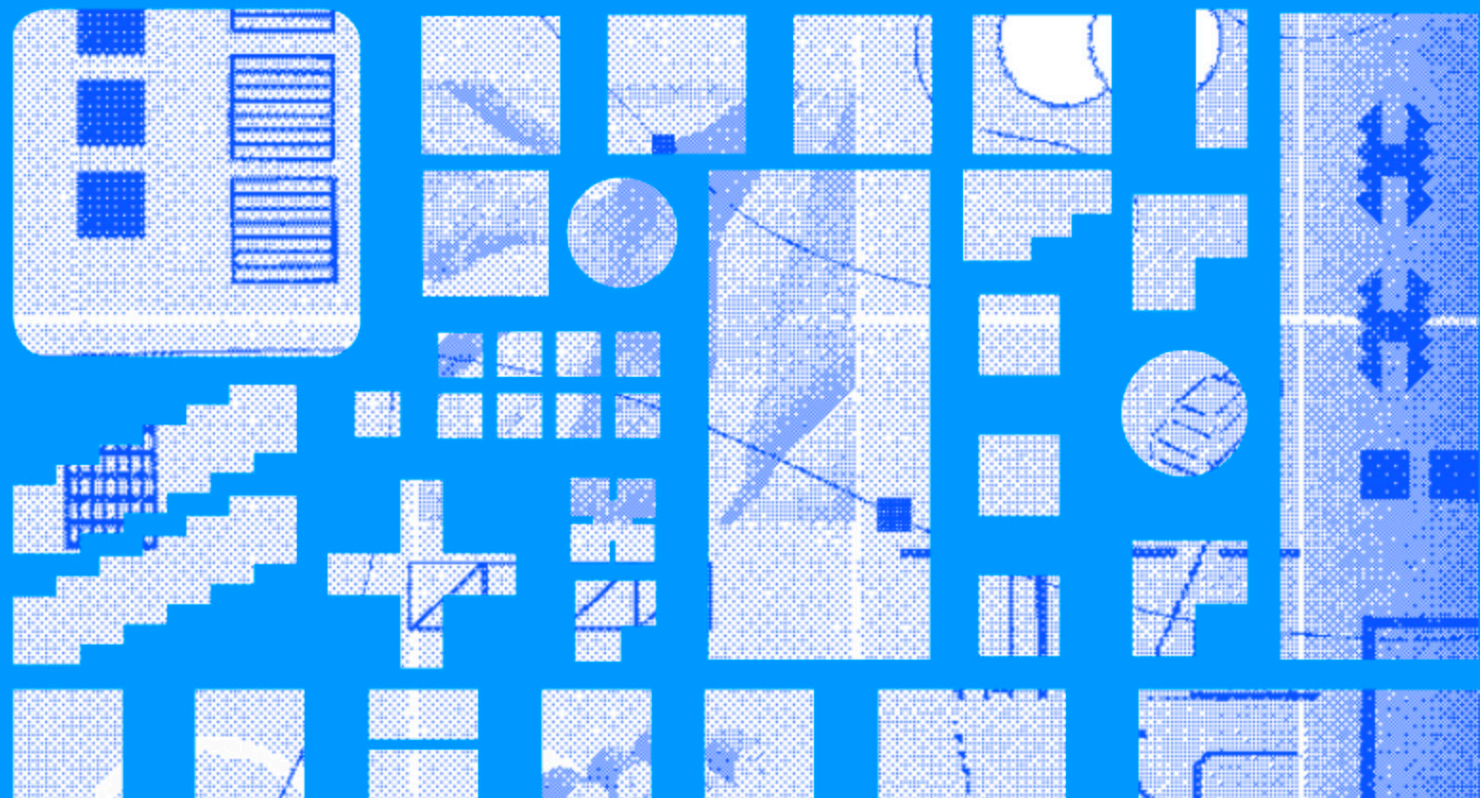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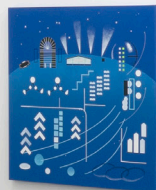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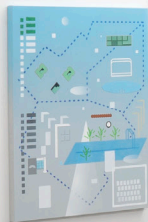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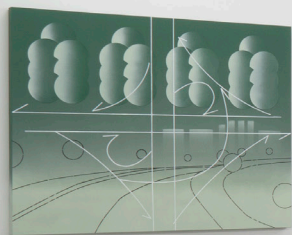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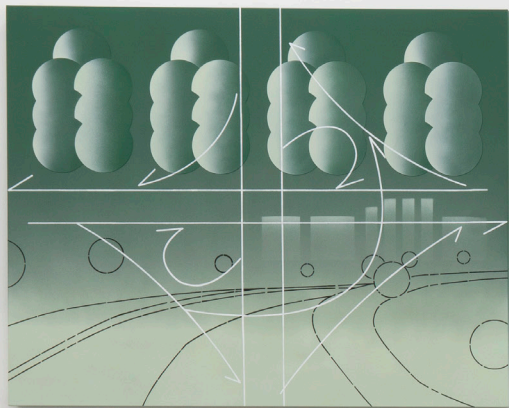
Wind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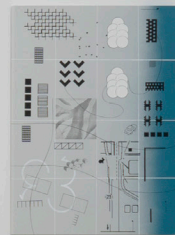
43×73cm, 영상 1분 10초(loop), 아크릴 4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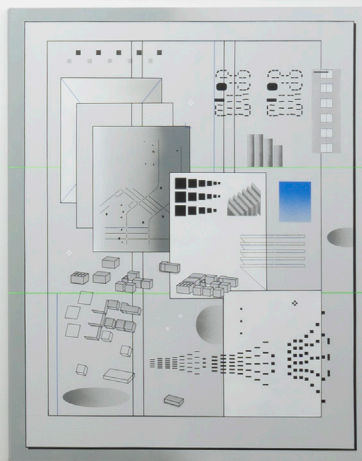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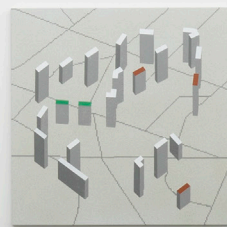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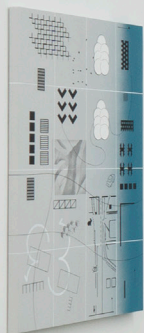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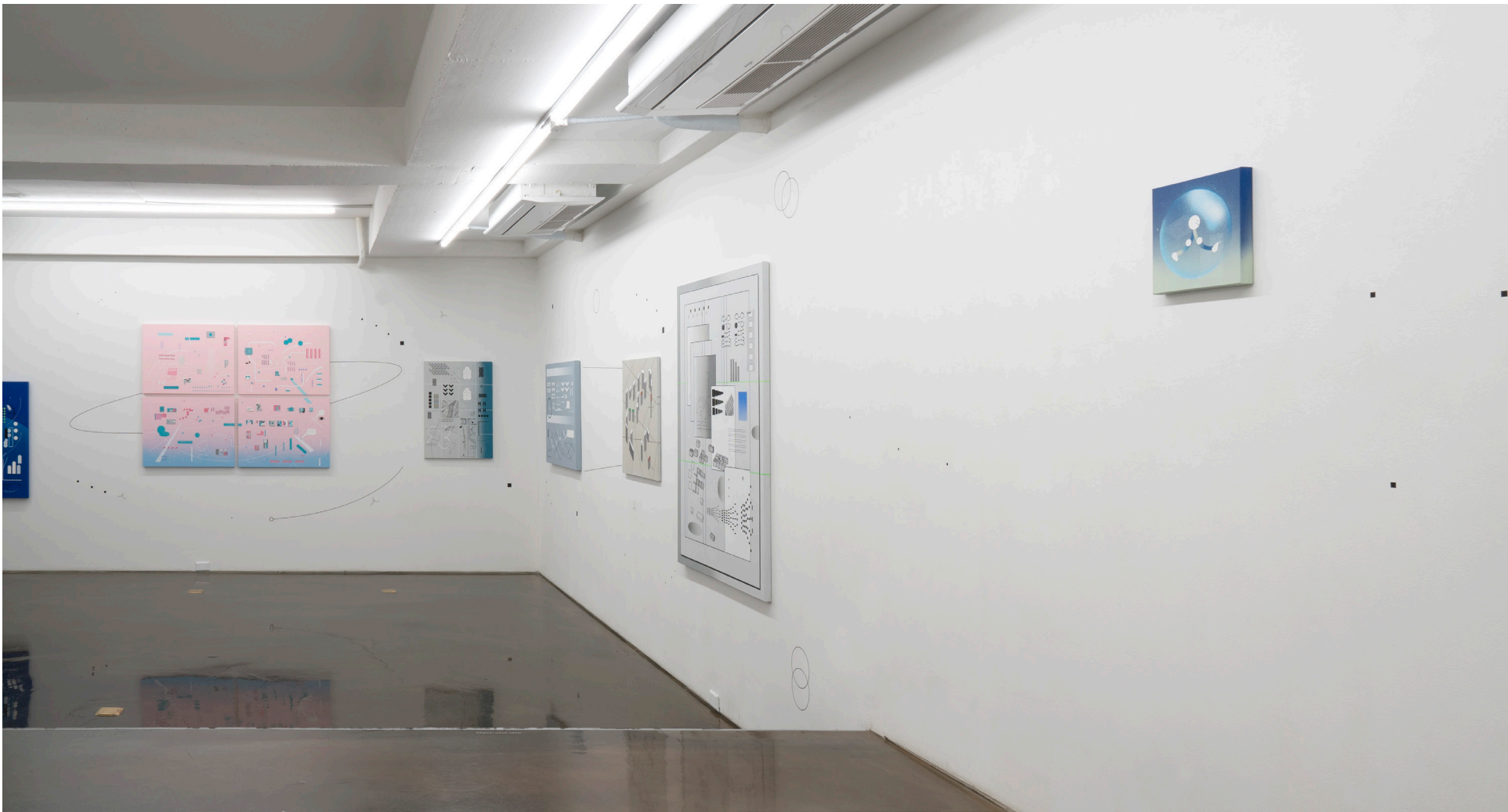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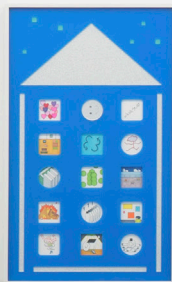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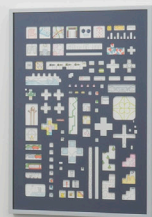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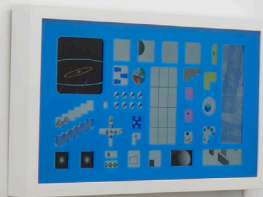












위성들: Satellites
추미림 개인전

글
권정현
이성휘

촬영
만선프로덕션

디자인
Pixel Space

이 책은 2020년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갤러리룩스에서 열린 전시 <위성들: Satellites>와
연계하여 발간 되었습니다.

www.chumirim.com
astralpixel@gmail.com



추미림 b.1982

학력
2006 단국대학교 예술조형학부 시각디자인과 졸업

개인전
2020 위성들: Satellites, 갤러리룩스
2016 일렁이는 그리드에서 태어난 새로운 형태의 모돌, 트렁크갤러리
2014 P.O.I, 스페이스 윌랑앤딜링
2013 WWW.THE WORLD WE LIVE IN, 갤러리 스테프 (싱가폴)
2010 418 : I am a teapot, 디 갤러리

주요 단체전
2020 사각사각-윙-또르르, 스페이스 윌랑앤딜링
2019 토끼가 거북이로 변신하는 방법, 니콜라이 쿤스트홀 (코펜하겐, 덴마크)
2019 공간탐색, 경남도립미술관
2019 기초조형연구 I, 일우스페이스
2018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 서울시립미술관
2018 대구 뉴-바우하우스, 대구예술발전소
2018 Sub scale, 갤러리 룩스
2017 서울포커스 25.7, 북서울시립 미술관
2017 Wonderland,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2017 조감적 시야, 스페이스 캔
2014 가면의 고백, MOA 서울대학교 미술관
2012 THREE WISHES FOR CHRISTMAS, 아트센터나비
2011 KOREA TOMORROW,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10 이해민선, 추미림, Gallery 2
2009 WONDERFUL PICTURES, 일민미술관
2009 서교육십 : 인정게임, KT&G 갤러리 상상마당

수상 및 선정
2020 서울문화재단 RE:SEARTCH 선정
2019 Unknown Asia 그랑프리 수상 (오사카, 일본)

작품소장
2019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2016 아라리오 뮤지엄 소장
2019 한화 드림하우스 소장
2015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